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4년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 I)

고교명 :

성 명 :

◆ 답안 작성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배부된 답안지에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지정된 글자수(줄 수)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 답안지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시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 답안 수정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 ◇ 답안지 본문과 여백에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 또는 표시를 하면 감점 처리 합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금이 왜 경제적 손실(deadweight loss : 자중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도 함)을 초래하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생각해 보자. 조가 매주 100달러를 받고 제인의 집을 청소해준다고 하자. 조의 시간 기회비용은 80달러지만, 제인이 집 청소로 누리는 효용은 120달러라고 하자. 따라서 조와 제인은 이 거래에서 각각 20달러의 잉여를 누리고, 창출된 총잉여는 40달러다.

이제 정부가 집 청소에 대하여 50달러씩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세금을 납부하고도 조와 제인의 후생이 전보다 증가할 수 있는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인이 집 청소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은 120달러다. 그러나 여기서 세금 50달러를 제하고 나면 조는 70달러만을 받기 때문에 그의 기회비용 80달러보다 작은 금액이 된다. 만약 조가 그의 기회비용인 80달러를 받고자 한다면 제인은 130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는 그녀의 최대 지불용의인 120달러를 초과한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 조는 소득을 올릴 수 없고, 제인의 집은 지저분해질 것이다.

이들이 세금부과 전에 누리던 잉여의 합이 40달러이기 때문에, 세금의 부과로 인해 조와 제인은 전보다 40달러의 복지가 감소하였다. 또 그들이 거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정부도 조세수입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사라진 40달러는 경제적 손실이다.

-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나】 영국에서는 1696년에 건물의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창문 수가 많다는 것은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 가액을 창문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간단히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던 것이었다. 원래 이 세금은 영국에서 청교도와의 전쟁 중에 찰스 2세가 전쟁자금조달을 위하여 1662년에 과세하였던 난로세로부터 기원을 두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에서는 난로당 2실링씩 세금을 과세하였다. 이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는 난로의 수량을 파악하여야 하였으므로 난로를 조사할 조사관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였기에 국민들의 불평이 많았다.

이 난로세는 네덜란드의 윌리엄공이 영국을 점령한 후 영국과 네덜란드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후에 폐지하였다. 윌리엄공이 이 난로세를 폐지한 후 8년만에 네덜란드의 방위와 스코틀랜드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다시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영국의 창문세이다. 영국의 창문세는 창문 수에 따라 10개 이하는 0.1파운드, 11개 초과~20개 이하는 0.3파운드, 20개 이상은 0.5파운드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영국인들은 세금을 회피하고자 주택의 창문을 막아 어두운 실내에서 사는 생활을 선택하였다.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경제 원리를 무시한 세금 부과가 국민으로부터 빛과 공기를 차단해 버림으로써 애초 의도와는 달리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 문점식, 『역사 속 세금이야기』

【다】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태를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가 희소한 자원으로 얻은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은 대가를 받으면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더 나아가 각자 노력한 정도나 생산에 기여한 정도의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대가를 받아야 형평성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형평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며 국가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사회의 부가 특정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사회의 갈등이 깊어져서,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일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목표이다.

현실 경제에서는 능력이나 기여의 정도에 비례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거나 보유 지식 또는 기술이 부족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제도 등을 통해 경제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라】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T’인데 사업자(판매자·생산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입니다. 즉, 조세 부담이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의 부분에 한정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매자가 제품 판매가격의 10%를 미리 판매가에 포함시켜서 팝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금을 내고 있지요.

사치성 상품이나 고급 서비스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불렸어요.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보석이나 귀금속 제품을 팔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람 등입니다. 세금 부과 대상은 사회나 경제적 여건이 바뀌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이전까지는 골프용품이나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는데 이들 스포츠가 대중화하면서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 매일경제, 2013년 9월 25일자

[문제1] 【가】의 예를 이용하여 세금이 경제적 순수손실을 초래하는 이유를 서술하십시오. 그리고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국의 창문세’는 어떠한 경제적 순수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술하십시오. <8~10줄 (240~300자)> [15점]

[문제2] 【다】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라】의 부가가치세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별소비세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10~12줄 (300~360자)> [2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폐, 즉 돈이란 무엇인가? 흔히 “그 사람은 돈이 참 많아.”라고 할 때의 돈은 재산이나 부를 의미하고, “그 사람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라고 할 때의 돈은 소득이나 수입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화폐, 즉 돈이란 사람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가치의 척도 기능을 한다. 화폐는 기본적 교환의 기능, 즉 교환이나 거래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된다. 화폐가 없었다면 특화와 분업에 기초를 둔 근대적 시장 경제 체제는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화폐는 가치의 저장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용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면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돈이 되어 평소 갖고 싶던 MP3 플레이어를 마련할 수 있다. 화폐는 가치의 척도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떡볶이 1인분 가격을 500원, 어묵 1인분 가격을 1천 원이라고 하자. 이 경우 어묵 1인분의 가격을 떡볶이의 2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물건 값을 이런 식으로 ‘어묵 1인분 가격의 몇 배’로 표시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과 비용이 따른다. 따라서 ‘원’, ‘달러’, ‘유로’와 같이 화폐는 각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 단위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나】 소와 바이올리니스트가 등장하는 샤갈의 그림과 음악을 타고 별이 흐르는 고희의 그림 중 어떤 것이 더 훌륭한 그림일까? 취향에 따라 샤갈 그림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고희 그림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림이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쉽지 않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적인 것’이고, 질적인 차이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비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샤갈의 그림이 1억 원이고 고희의 그림이 5억 원이라면, 아마도 앞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희의 그림이 샤갈의 그림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것도 5배나 더 훌륭하다고. 이처럼 화폐는 모든 것을 쉽게 비교케 해준다. 화폐가 가치를 비교하는 척도로서 존재하고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 화폐는 모든 것을 계산하게 만든다. 화폐는 모든 것을 계산 속에 끌어들이는 계산공간을 형성한다. 이처럼 계산공간 속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부른다. 화폐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그것이 컴퓨터 같은 생산물이든, 사슴 같은 ‘생물’이든, 아니면 빨래하는 ‘노동’이든 간에. 근대는 모든 것이 이처럼 상품화되는 세계, 다시 말해 화폐를 통해 비교되고 계산되는 시대이다. 이로써 우리의 삶은 급속하게 근대적 합리성 속에, 계산적인 삶 속에 포섭되게 되었다.

- 이진경, 『모더니티의 지층들』

【다】 일반 경제논리로는 재화가 상품화되어도 재화의 특징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시장 교환은 재화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특정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사고파는 경우에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된다. 허시는 자신이 명명한 ‘상품화 효과’를 주류 경제학이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품화 효과는 비공식적 교환, 상호 의무, 이타주의나 사랑, 봉사정신이나 의무감 같은 기준보다는 대부분 상업적 조건에만 의존해서 제품의 성질이나 제품의 공급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다. 예를 들어, 미국 퇴직자협회는 가난한 퇴직자에게 시간당 30달러의 할인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줄 의향이 있는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이 제의를 거절했다. 이번에는 가난한 퇴직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들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혈액을 일상적으로 사고파는 세상에서 적십자에 혈액 500밀리리터를 기증하는 것은 여전히 관대한 행동일까? 아니면 혈액을 팔아 돈을 벌 기회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불공정한 노동 행위일까? 헌혈 캠페인에 기여하고 싶다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50달러를 기증하여 수입이 필요한 노숙자에게서 혈액 500밀리리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을까? 이타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꽤나 혼란스러울 것이다.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라】 ‘대한민국의 20대여 재테크에 미쳐라’ 한 때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의 제목이다. 착실하게 일을 하고 알뜰하게 저축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퇴물로 여겨지는 풍토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돈 버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머리를 싸맨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어느덧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격언이 자취를 감추었다.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른 펀드는 금융 소비자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재테크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고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엄청난 판돈이 걸리는 머니게임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돈을 펀드나 주식에 넣었는데 반토막 내지 깡통이 되어버린다.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의 성격이 짙어질수록 승패의 격차는 커지기 마련이다. 사필귀정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동기로 굴러가는 머니게임에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하다. 누군가가 크게 따면 다른 쪽에서 정확하게 그만큼 잃도록 되어 있는 도박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연쇄 고리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 핵심에 화폐 제도가 놓여 있다.

- 김찬호, 『돈의 인문학』

[문제3] 제시문 【가】는 화폐의 개념과 세 가지 기능을 정리한 글이다. 현대사회 시장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왜곡되어 나타나는데, 제시문 【나】, 【다】, 【라】가 다루는 화폐의 문제는 무엇인지 각기 설명하고, 또한 이러한 비판의 공통된 주제 의식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20 ~ 22줄 (600 ~ 660자)> [3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족 문제는 자녀의 출산, 양육과 보호, 사회화, 경제적 기능, 정서적 안정 제공 등 가족의 사회적 기능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외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산업화, 핵가족화 혹은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변동은 자녀 양육 문제, 저출산 문제, 노부모의 부양 문제, 이혼 문제 등 다양한 가적 문제를 야기 한다. (...중략...) 가족의 보호 기능 약화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가 있다. 가족의 형태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내의 노인 위치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노인이 빈곤, 건강 약화, 무력감과 소외감 등을 겪고 있다.

-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나】 매스 미디어는 미담이나 선행을 부각하고 칭찬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규정하는 기존의 규범과 가치를 사회에 확산한다. 우리는 종종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일탈이라고 부르는데, 일탈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이 정하는 대로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여론 재판을 받기도 한다. 매스 미디어는 일탈 행위의 부정적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각성시키는 일종의 사회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이나 역할이 가볍게 다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WCA 방송모니터회는 지난 8-9월 3개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13개를 모니터한 결과 노인이 주요 배역에서 소외되거나 주인공의 갈등상황에 묻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인의 활동 범위도 집에 한정되고 지나치게 가족문제, 자녀 문제에 연연하는 소극적 인물로 나오는 것으로 지적됐다.

- 연합뉴스, 2005년 11월 7일자

【라】 미디어는 노인을 ‘왜곡’하거나 ‘은폐’한다. 노인의 모습을 부정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왜곡이라면, 일반화하기 힘든 소수 노인의 특이한 삶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이상화함으로써 일상적인 노인의 삶을 가리는 효과는 은폐에 해당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프로그램에 등장한 노인들의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언행은 웃음거리가 되며, 때로는 향수나 추억을 위한 감상적 소비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거기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설령 노인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다고 해도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모습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재현 방식은 과대 포장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김균, 『고령화 시대 노인층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지원방안 연구』

【마】 과거의 노인은 농업에 관한 한, 가장 권위적인 어른이었을 뿐만 아니라 농경지를 비롯한 재산권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이었다. 따라서 특별히 복지제도가 없었어도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부수적으로 창출된 복지의 수혜자였다. 앞으로의 노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3층보장 체제(three tired system)」속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노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은 과거 노인의 가부장적 권위와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미래의 노인이 갖게 될 각종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복지제도의 수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구조적 특성 중의 하나의 핵가족제도이다. 이핵가족제도 하에서 노인은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적 권위를 상실하였다. 거기에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다. 그야말로 가족 내에서의 몰이해의 존재로 전락되었다. 또 노인의 역할의 상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역할의 상실을 포함하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 자녀의 성장, 출가로 인한 역할의 상실, 가까운 친구, 친지들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생기는 역할의 상실을 들 수 있다.

-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안』

[문제4]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문제점을 제시문 【마】에서 찾아 서술하십시오.

<8~9줄 (240~270자)> [25점]